협회 결원 임원 보선, 항공분과위원 위촉

제3차 이사회서, FAPAA 총회 개최 유치도

협회 일부 임원의 사임에 따른 결원 임원의 보선 및 항공분과위원 추가 위촉과 아울러 2000년 FAPAA(Federation of Asia Aircargo Association) 총회의 서울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6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1999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는 협회 일부 임원의 사임서 제출에 따른 임원 보선은 복운업계 대표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키로 한 제2차 이사회('99. 4. 13)의 결의에 따라 5월 25일자로 양천구(남성해운항공 대표), 김병배(남중해운), 윤석우(두성해운항공), 이우종(보림통운), 신규승(엑스트랜스), 홍성호(케니항운), 박종만(티오피해운항공), 김영진(해영해운항공) 사장 등 8명을 새로이 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항공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기존에 운영분과위원인 김인환(동보해운항공) 사장과 윤리분과위원인 김영오(태화국제운송)·김지일(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양천구·이우종(보림통운) 사장을 항공분과위원으로 위촉하고, 윤석우·신규승·홍성호·김영진 사장 등 모두 9명을 새로이 위촉하였으며, 항공분과위원장의 선임은 차기 항공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6월 14일 개최된 '99년도 제2차 항공분과위원회에서는 태화국제운송(주) 김영오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아·태 항공화물협회연맹의 2000년 총회를 서울로 유치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자로 사임처리된 전임 임원은 부회장 권영길(롯데항공해운), 이사 여성택(국제항운)·이길남(대륙항공해운)·강성린(맥스트랜스Int'l)·배광우(일양익스프레스)·이정실(제일항역)·김영남(한생해운항공)·김철영(한호항공)·김호길(호성국제운송) 사장 등 모두 9명이다.

협회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회 장	김 정 민	성진컴바인드로지스틱	이 사	이 우 종(新)	보 림 통 운
부회장	윤 원 기	대 동 종 합 물 류		신 규 승(新)	엑 스 트 랜 스
	조 희 열	삼 조 해 운 항 공		김 지 일	익스피다이터스Korea
이 사	정 계 성	가 야 쉬 핑		김 영 오	태 화 국 제 운 송
	양 천 구(新)	남 성 해 운 항 공		홍 성 호(新)	케 니 항 운
	김 병 배(新)	남 중 해 운		권 무 환	코 메 트 해 운
	강 택 구	대 일 해 운 항 공		박 종 만(新)	티 오 피 해 운 항 공
	윤 석 우(新)	두 성 해 운 항 공		김 영 진(新)	해 영 해 운 항 공
	김 인 환	동 보 해 운 항 공	감 사	최 건 식	신 총 기 업
	노 동 현	동 아 항 공 화 물		채 호 석	봉 암 인 터 내 쇼 날
	배 창 섭	범 아 해 운			

항공분과위원장에 김영오 사장 선임

항공委, CASS 차등담보제 논의도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1999년도 제2차 항공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석중인 항공분과위

원장에 태화국제운송(주) 김영오 사장을 선임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전임 권영길 부회장(롯데항공해운 대표)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항공분과위원장에 김영오 사장을 새로이 선임하였으며, 새로 선임된 김 위원장은 차기 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보선될 예정이다.

이번 제2차 항공분과위원회에서는 CASS 사무국의 항공화물대리점 신용에 따른 차등담보 제의안에 대해 복합운송업계의 많은 회원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하였으며, 특히 연간 취급 정산금액 가이드라인(guide line)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최대한 하향토록 하며 운임송금 신용실적이 우선 적용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항공사의 고운임정책 및 미주지역 수출화물 체화건은 동남아 지역별 Rate 시장가격 자료를 수집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Tariff 인하를 촉구하고 아울러 미주지역 체화건도 운임조정문제와 결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항공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회장, 항공분과위원장 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항공사를 방문하여 제 사안을 설명하고 협상키로 했다.

협회 표준 대리점계약서 권장안 제정

'99년 사업계획 일환, 해운좇서 최종 심의

1999년도 사업계획의 하나인 '협회 표준 대리점계약서'(KIFFA Standard Agency Agreement) 권장안이 마련됐다.

지난 1월 상호 대리점계약서(안)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협회 사무국에서 초안을 제정하여 제6차 해운분과위원회('99. 3. 15)의 심의를 거쳐 협회 법률고문인 유록상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이 안(案)에 대하여 지난달 22일 제7차 해운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

협회에서 대리점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하는 것은 국내 복합운송업체와 해외 복운업체간의 업무취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또는 금전상의 불이익이나 분쟁발생시 이를 명확히 가리게 하는 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 권장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지정, 제3조 활동범위, 제4조 의무, 제5조 정산, 제6조 배상, 제7조 유효기간 및 해제, 제8조 관할, 제9조 변경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운송·항공운송 또는 복합운송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계약내용을 담고 있다(14~19면 참조).

회원사는 'KIFFA 표준 대리점계약서' 내용중 필요 또는 불필요한 부문을 가감하여 사용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외국의 포워더와 협의하여 이 내용중 수정, 보완,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한편, 수출입화물의 취급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서로 다른 운송 파트너간에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서비스 활동이므로 운송과 관련된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리점계약 체결이 반드시 요구된다.

'CASS 가입 강요로 보기 어렵다'

공정委,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리

우리 협회의 지난해 9월 14일자 CASS-Korea Panel(한국항공화물은행정산제도 위원회) 및 그 회원 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5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ASS(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제도 가입과 관련하여 현재 260여개 대리점중 168개 대리점만 가입되어 있고, 대리점이 CASS 가입시 CASS제도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자신의 판단하에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CASS-Korea가 대리점들에 대해 CASS 가입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CASS제도가 가입항공사들의 영업에 관한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회사 등의 설립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CASS가 단지 화물수송이 이루어진 후에 운임의 정산절차나 결제시기 등을 표준화한 것이므로 각 항공사의 주요 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CASS제도의 내용상 결제조건 등이 부당하다는 우리 협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CASS의 계약당사자인 IATA 본부와의 문제로서 피조사인(CASS-Korea Panel)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 제도가 IATA 본부의 주관하에 33개국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만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 협회의 'CASS 공동담보제도의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CASS제도 시행에 따른 일정기간 동안의 외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확보차원에서 종전의 개별담보를 공동담보형태로 변경한 것이고, CASS가입 대리점중 일부 대리점은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CASS제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회신했다.

항공수출화물 이고료 인하 조정

7월부터, 全장치장 수입보관요율의 50% 적용

지난 3월 김포공항내 장치장 보관요율 조정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장치장은 수출화물 이고시 수입화물 보관요율로 징수하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수입화물 보관요율의 1/2로 적용키로 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김포공항내 대부분의 장치장이 수출화물 이고료를 수입화물 보관요율의 50% 적용을 들어 대한항공측에 이의 조정을 촉구하여 이번에 다시 환원된 것이다.

대한항공측은 "수출화물 이고(移庫) 건수가 많지 않으나 Weight Down 등의 악용사례가 있어 이의 제한 수단으로 잠시 인상되었던 점을 이해할 것"을 밝히고, "수출화물 이고료 조정이 늦은 것은 창고료 전산조정 기능 문제상 7월 1일부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급보증 수수료 금년중 재조정"

금감원·서울보증 회신, 경영성과 따라

지급(이행)보증보험 수수료의 인상(1.2% → 2.4%)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불가피한 인상조치였다고 주장하고, 보험사고의 개연성이 줄어들어 보증보험사의 경영성과가 개선될 경우 이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자 우리 협회의 운임지급보증 수수료 인하건의에 대해 IMF 사태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속출과 개인사업자의 어음부도율 급증 등으로 보험사고가 급증하여 위험집단별로 이재율 및 손해율이 높아 요율수준의 적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보험종목 및 부담사유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국내경기의 안정화 추세로 보험사고의 개연성이 줄어들어 보증보험의 이재율 및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증보험사의 경영성과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아울러 정부의 보증보험사에 대한 조기 정상화조치가 진행중이므로 금년중에 보증보험의 보험요율 수준도 재정비될 것임을 알려왔다.

우리 협회에서는 항공 여객운임과 화물운임 사고율은 1997·98년 2개년의 보증보험계약금 대비 사고율이 여객운임(BSP)의 경우 8.0%, 화물운임(CASS)은 0.58%로써 보상비율에서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증수수료는 동일요율인 2.4%를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즉, 수출화물 운임지급 사고율이 여객운임지급 사고율에 비해 10배이상 낮은 점에 비추어 동일요율 적용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제고에도 저해하므로 보증보험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1.2%로 환원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상반기 연수교육에 총 408명 수강해

단과반 5·기초반 2·중급반 1회 실시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연수교육에 올들어 상반기 동안 총 408명의 회원사 임직원들이 수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단과반 교육(20시간)으로 복합운송(해운) 3회, 항공운송 2회 등 5차례 실시되었고 기초반 교육은 해운·항공 각 1회씩 2회, 중급반 교육 1회 등 총 8차례의 연수교육훈련에 408명이 수강하여 1회 평균 51명의 교육수강율을 기록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특히, 협회 연수교육이 지난 3월 23일자로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수료시 수강료(교육훈련비)의 90%(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인 기업) 또는 70%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반기 연수교육은 단과반 4회(해운·항공 각2회), 기초반 2회(해운·항공 각1회)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연수교육 실시 현황 및 하반기 일정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시간)	수 강 인 원			비 고
				계	수료	미수료	
기초반	해운	제33기	3.8~ 26(60)	53	49	4	
		제34기	11.1~ 19(60)				예정
	항공	제 9기	3.29~4.15(52)	49	46	3	
		제10기	10.11~27(52)				예정
단과반	복합 운송 (해운)	제2기	2. 1~ 5(20)	55	55	·	
		제3기	2. 8~12(20)	52	52	·	
		제4기	5.10~14(20)	51	50	1	
		제5기	7. 5~ 9(20)				예정
		제6기	10. 4~ 8(20)				예정
	항공 운송	제2기	2.22~26(20)	52	52	·	
		제3기	5.17~21(20)	54	52	2	
		제4기	7.12~16(20)				예정
		제5기	11.22~26(20)				예정
중급반	제2기 중급반		5.31~6.23(72)	42	38	4	
계(수강인원)				408			

"복합·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통합추진은 철회돼야"

일관운송·단순주선업 통합은 현실 무시한 계획

최근 정부에서 복합운송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통합을 물류분야 규제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데 대해 우리 협회에서는 이의 통합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개진했다.

우리 협회는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복운업체는 자기 명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운송장(AWB)을 발행, 복합운송인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수출입화물을 일관운송하는 반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는 단순히 국내화물의 운송주선만 이행하는 등 양 업종의 업무영역이 현격히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통합추진계획은 업계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업종의 등록기준 차이로 인해 업체의 부담만 가중되고, 업무영역 상이로 업체간 불신초래 및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이 계획을 전면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주로 국내화물의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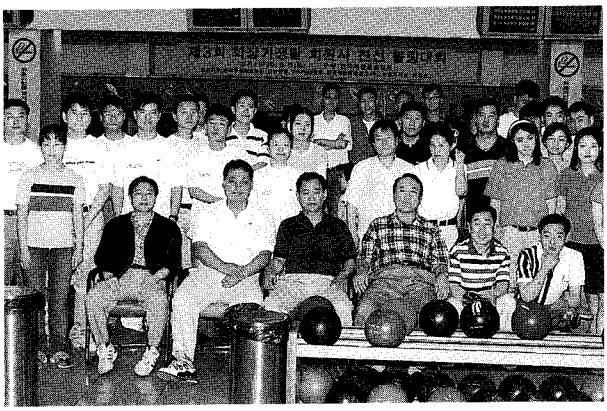
제3회 회장기쟁탈 볼링대회 성황리에 열려

우승-트랜스피아, 준우승-대동종합물류

제3회 KIFFA 회장기 쟁탈 친선볼링대회가 지난 6월 5일 성황리에 개최돼 (주)트랜스피아(대표 김영승)가 우승했으며, 준우승에는 (주)대동종합물류(대표 윤원기)가 차지했다.

1997년과 98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친선볼링대회에는 17개사 51명이 남녀 각각 2 1명 3인 1조로 참가한 가운데, 트랜스피아(참가자 김영승·최진기·이정진)가 우승을 차지하여 회장기와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았으며, 부상으로 대한항공에서 협찬한 제주도 왕복항공권이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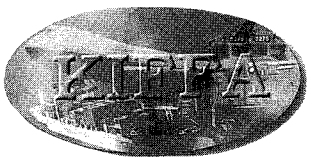
단체 준우승은 대동종합물류(참가자 차한수·이용희·함윤주), 3위에는 일양익스프레스(조지현·장형곤·조현정)가 입상하였으며, 남녀부 개인상은 메인프레이트의 현동수, 동서해운의 최양숙氏가 각각 차지하여 아시아나항공 협찬의 국내선 왕복항공권



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이번 제3회 대회에는 특히,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복합운송창고, 코리아쉬핑가제트, 카고뉴스 등에서 협찬하여 입상상품 및 행운추첨에 의해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상품이 제공됐다.

입 상 자 현 황

구 분	순 위	회 사 명	입 상 자
단체상	우 승	트 랜 스 피 아	김영승,최진기,이정진
	준우승	대동 종합 물류	차한수,이용희,함윤주
	3 위	일양익스프레스	조지현,장형곤,조현정
개인상	우승(남)	메인 프레이트	현동수
	우승(여)	동 서 해 운	최양숙
	준우승(남)	썬 익스프레스	박해규
	준우승(여)	안 신 기 업	박영숙
인기상		아태종합물류	지용태
행운상		고려해운항공	최현영
감투상		대한통운국제물	오혜진
응원상		성 보 해 운	
기 타	행운추첨상		16명

www.kiffa.or.kr